

# 데스크 시각

김미은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연극 '엄짱이 유씨', 뮤지컬 '만화방 미숙이'는 지역발 (發) 흥행작이다.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국구'가 된 작품들이기도 하다. 광주산(産) 공연으로는 '화려한 휴가' 정도가 떠오른다.

지역 정체성을 담은 공연의 필요성은 늘상 제기돼 왔다. 강운태 시장 역시 취임 직후부터 대표 공연 제작을 주문했고, 광주문화재단과 시립예술단체가 제작을 맡게 됐다.

재단이 브랜드 공연을 쫓아들었다든가 내심 기대감이 있었다. 지금까지 광주문 진위의 지원으로 제작한 작품들은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 브랜드 작품 줄속 우려

재단은 지난 15일 순재오씨 등 12명으로 광주대표브랜드 공연 제작기획단을 구성했다. 첫 공연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작품 제작 일정이나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제작 기간이 길다고 꼭 수준 높은 작품이 만들어 지는 건 아니다. 하

지만 개별 단체의 정기 공연 작품도 아니고, 광주의 대표 '얼굴'이자 끊임없이 관객들을 만날 작품을 만드는 데 4개월은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는 재단측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작품은 어떻게든 만들어 지지겠지만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건 예산 낭비다.

## 시장님 '관심 사항'의 딜레마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보름 조금밖에 행사를 치르거나 작품을 제작하는 건 예산을 정해진 기간 내 써야 하거나,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때다. 하지만 재단은 이 점에서 자유롭다. 더구나 재단은 브랜드 작품 제작을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다.

그런데 왜 급하게 작품을 무대에 올리려는 걸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관 취재에서도 자주 듣는 게 시장님 '관심 사항'과 '결심 사항'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시장님 관심사

향은 지지부진하던 목은 숙제를 신속히 해결해준다. 문화계에도 '좋은 예'가 많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찮다. 관심사항의 성과에 부응하려는 공무원들이나 문화계의 지나친 오버액션 말이다.

강시장은 지난해 당선되자마자 비엔날레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재단은 행사를 며칠 앞두고 부랴부랴 이벤트를 준비했다. 대표 브랜드 공연 역시 작품 제작의 속성은 무시한 채 성과만을 재촉하는 시의 간섭이 무시수를 넣고 있다.

작품은 하루 아침에 똑딱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합한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 몇달을 고민하는 게 작가들이다.

## 시장님 '관심 사항'의 딜레마

또 하나 강시장이 체결한 축제 교류 MOU에 따라 8월 에디버러 축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제작을 다그치는 이유 중 하나다. 자칫 '에디버러에 다녀왔다'는 피리피리 하나 달기 위해 수억원을 쓰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재단에서 강연을 한 김동호 전 부산영화제집행위원장의 발언은 시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는 "관이 개입하면 문화는 죽고, 외경이 불면 문화행사는 망한다"고 말했다. 시가 재단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도었다.

이처럼 주변에서 웅원 소리는 들리는데

정작 재단은 스스로 위촉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단 설립 공청회에서 경기문화재단 관계자의 발언은 되새길만하다. 지자체 신규 사업이나 행사는 모델이 없어 대부분 재단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행보를 무겁게 하는 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 시장 관시에 관심 갖는 공무원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시의 요구로 떠맡게 된 3D영화제가 대표적이다.

재단 직원들은 문화전문 인력들이다. 문진위를 해체하고 재단을 출범시킨 이유는 기획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예전 문진위는 시에서 그런 밑그림에 따라 실행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비난이 쏟아지면 그런 모든 문진위의 뉘였었다. 재단이 그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된다.

재단은 전문성을 무기로 끊임없이 시를 설득해야한다. 물론, 선행조건이 있다. 시장님 '관심'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결과물을 재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해야한다는 점이다.

이건 물론,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속도전과 성과주의를 요구하는 시장의 마인드가 바뀔 때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 시 설

### AI 가축 '부실 매몰지' 사후관리 시급하다

한 달만 동안 전남지역 전역을 휩쓸며 300만 마리의 오리과 닭을 매몰케 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화순·장흥·여수지역 닭·오리 농장 등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제한조치가 AISA태 이후 처음으로 해제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주부터 AI 경제지역 내 모든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AI바이러스 간존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I 최대 발생지역인 나주와 영암은 혈청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조치가 내려지면 사실상 AI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제역 역시 청정지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내고 있다. 한편과 싸우며 눈물겨운 'AI·구제역과의 전쟁'을 한 수많은 일선 공무원들과 축산농가들이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나주·영암지역 검사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데다 경기 등 타지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완전 종식까 지는 시일이 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암·나주 등 6개 시·군, 110곳에 320만 마리의 오리과 닭이 매몰된 현지의 환경오염 여부가 발생의 불이이다. 전남도가 가축 매몰지 104곳에 대한 점검결과, 64곳이 침출수 배출관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21곳은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부실 매몰'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매몰이 이뤄진 데다 날씨가 풀리면 침출수 등에 따른 오염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전남도는 매몰지 사후관리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매몰지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되, 모든 매몰지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 구청 실패사업 확대 추진이라니

광주시가 구청에서 실패한 사업을 대안도 없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는 최근 2억6000만 원을 들여 총 713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매할 뒤 이를 5개 구청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재활용품 수거 방식은 지난해 광산구 등 자치구가 도입했다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폐기한 바 있다. 광

산구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플라스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5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리수거함 주변이 불법으로 버려진 일박쓰레기로 넘쳐나는 등 실패를 거두지 못하고 1년여 만에 '문전 수거'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수거할 주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하루 100여 명의 공공근로자가 투입되기도 했다. 나머지 4개 구청 역시 분리수거함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문전 수거 방식으로 환원했다고 한다. 결국

월세와 행정 낭비만 한 셈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을 강행한다고 나선 것은 현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시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될 경우 주택가 재활용품이 높아지고 쓰레기 양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실패했지 않은가.

1년 사이에 시민의식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뚜렷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밀어붙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행 시의 방편대로 수거함마다 관리자 등 두다 해도 이 역시 많은 인건비가 필요해 사업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광주시의 제정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 단 함포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시는 분리수거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재했는지 여부는 수백 년을 계속되어 온 미스터리다. 고대인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대륙이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실제 존재했지만 급작스러운 지진과 화산활동으로 인해 하루 사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설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아틀란티스를 처음 언급한 플라톤이 '이상적인 사회의 전형으로써' 상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대륙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신들의 지문'을 써낸 그레이트헨릭 등 이른바 비정통 과학자들은 이 대륙의 실재(實在)를 확신하고, 지금도 그 위치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이슈를 명백한 사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무한한 우주 저편에서 거대한 우주선 3대가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 역시 정밀조사 결과 우주방위권에 탐지됐을 먼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처럼 초현실적이거나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문제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언제가는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며 제시하는 증거와 가설들을 들다 보면, 비좁은 지구에서 기거해야 80년을 살고 가는 인간의 한계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홍희기 정경부차장 redplane@

## 아틀란티스



김창균



머칠 사이에 살짝 다가온 불기운이 폭발과 확산으로 얼룩진 겨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응당 꽃샘 추위도 찾아오겠지만 매화가 피고 산수유 꽃망울이 터질 것이며, 세간의 우월한 소식도 희망의 씨앗을 주는 생명력에 가려질 것이다.

봄은 천층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졸업이 거쳐 상급학교로 또는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고, 입시 전쟁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위한 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때가 천층의 봄이다. 이때의 우리 아이들에게 '몸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라(smarter than harder)!'고 일러주고 싶다. 이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변

사키는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법'에서 "2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기록을 쓰고 애쓰면 한타십에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가고 없다"고 단언했다. 산업 사회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서 평생토록 일하는 게 미덕이었다. 그러나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평생 직업이란 없으며, 따라서 누구나 새로운 경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돈벌이와 출세의 공식에 의거한 형식과 스펠에 집착하는 것은 나심 탈레비의 지적처럼 '자신의 희망을 사고의 근거로 삼는 오류'일 수밖에 없다.

## 변화의 시점에서

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와 빈곤이 대립되고, 가난이 꿈조차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작년 가을 권영길 의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의 꿈도 서열화되고 있었다. 부자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이른바 사회 주류층을 형성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데 반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주로 안정된 직업을 찾고 있었다.

물론 출세의 잣대가 되는 특정 직업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자녀들이 희망 직업에 대해 구체적 자기 설계 계획을 갖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희망조차도 막연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롤 모델(Role model)의 부재, 사회·경제적 경험 및 교육 요인,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유 등에 의해 꿈조차 부모의 경제력에 발목 잡힌다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10여년 전에 이미 로버트 기요

백조는 당연히 흰색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구급의 진화는 '블랙 스완(검은 백조)'이었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판단이 행동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자신의 능력과 개성, 장점을 하루빨리 발견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미 화벌이나 천편일률적인 스펠보다는 조금 점수가 뒤지더라도 자신만의 확실한 장기를 가진 인재로 선발하는 움직임이 기업에서 대확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10년 뒤를 예상하며 현재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변화에는 희생이 따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내 치즈를 훔겼을까'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떨친 끝에 새 치즈를 구한 꼬마인간 허의 결론은 단호하다. "변화를 예측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그 어떤 기득권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광주북성중 교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일고나 사진,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기 고

이영로



지적(地籍)은 토지에 대한 호적(戶籍) 또는 토지에 대한 이력서(履歷書)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국가는 토지를 배분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확량에 기초한 과세를 목적으로 경작자별 면적을 등록 관리했다. 이것이 지적측량과 더불어 지적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계기다. 따라서 지적을 알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사람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맞춰 입고 관리하고 화장을 하듯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모양을 나누고 옮기고 만들어야 한다.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전국 토지 3715만7000필지를 현대화된 지적제도에 걸맞게 최신측량기술로 다시 작성하고자 디지털 지적도 사업에 약 3조46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00년 만에 전국 땅 지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다름 아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경계 등을 재조사하여 정보화된 지적, 면적, 경계 등을 새롭게 등록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기대와 당위성은

## 지적(地籍) 재조사사업에 협조를

이 모든 것이 지적측량에 의해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시대인 1910년대 만들어져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75년 지적법 전면개정으로 현대화된 지적 관계법령을 마련 토지·임야대장의 카드화, 수직측량제도의 도입과 수치지적부 신설 등 지적역사상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910년 과세를 위한 지적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올해는 지적제도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최근 지적측량은 측량 기기의 발달과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다변화, 정보처리의 전산화에 힘입어 토지현황 및 경계측량은 물론 토지개발, 해양개발,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토지의 형상정보와 토지이용 계획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www.onnara.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물론 일부 우려들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는 책무가 있다는 대평적 하에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역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내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다. 과거를 모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 자료로, 국민의 재산관리 용도로 쓰이는 지적제도는 역사를 모르거는 진일보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관련 일체의 서류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2013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지적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미래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될 때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 논·밭두렁 태우기 득보다는 失... 규제 캠페인 펼쳤으면

봄이면 이곳저곳에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등산객들의 부주의 때문이지만 농민들이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을 일으키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매년 3월 초순경이면 농사준비를 위해 시행하는 논밭 두렁 태우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한다. 예전에는 논밭 두렁을 태워 해충을 잡아주던 요즘에는 악충을 더 많이 죽여 되레 실이 많은 것이다.

실제 논밭 두렁에 살고 있는 해충은 애벌레, 매미충, 말바구미 등은 11%에 불과하다

고 한다. 이런 해충을 잡으려 불을 지를 경우 해충의 천적인 거미, 기생봉, 꽃노랑제 등 무려 89%가 되는 악충들이 모두 죽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지역에서는 봄이면 어김없이 논밭 두렁을 태우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는 경우까지 발생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에서라도 논밭 두렁 태우기를 규제하면서 농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펼쳤으면 한다.

▲좌해경·광주시 동구 산수2동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 <b>金鐘宅</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柳潤喆</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書庚完</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2-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사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